『종교학연구』 제 37집
한국종교학연구회, 2019. pp. 121-144.

궁을가 연구

박 병 훈*

Ⅰ. 머리말
Ⅱ. 〈궁을가〉의 서지사항과 분류
Ⅲ. '궁을'의 의미와 〈궁을가〉의 내용
1. 동학의 '궁을(弓乙)' 의미의 변화
2. 〈궁을가〉의 내용
Ⅳ. 각 교단의 〈궁을가〉에 대한 인식
1. 증산 강일순의 인식
2. 원불교의 인식
Ⅴ. 맺음말

Ⅰ. 머리말

<궁을가(弓乙歌)>는 조선 명종 때의 북창(北窓) 정렴(鄭磏, 1506~1549)이 지었다고 일컬어지는 비결가사(秘訣歌辭)이다. 정렴은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기언(記言)』에서 다음과 같은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 묘사된다.

> 어릴 때부터 마음을 가다듬어 신과 통하여 가까이는 한마을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멀리는 사방 오랑캐의 풍속이 전혀 달라 개 짖는 소리나 새 우는 소리처럼 들리는 이방의 말까지 귀신처럼 알았고, 여러 방술(方術)과 백가의 술법 또한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 수료

모두 배우지 않고도 깨달았다.[1)]

한편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보면 이인(異人)·천인(天人)·진인(眞人) 등으로 호칭되며, 자신의 친구에게 목숨을 빌려주거나[2)] 명당자리를 얻어주거나[3)] 외국어로 서로 이야기하고 새소리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는[4)] 놀라운 신통력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민중들은 정렴을 용호대사(龍虎大師)라 부르며 숭상했고, 흔히 정감록으로 대표되는 비기도참서 중 하나인 <북창비결(北窓秘訣)>[5)]을 정렴이 지었다고 여기고, 그에 담긴 예언이 이 <궁을가>에 담겨 있을 거라 믿으며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애썼다. 이러한 <궁을가>에 대한 생각은 동학교, 원불교를 비롯한 많은 신종교에도 계승된다.

그러나 자료상으로는 <궁을가>가 과연 정렴이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6)] 민중들이 그들의 열망을 담아 궁을가의 저자를 정렴으로 가탁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 <채지가>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비결가사가 공유하는 지점들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7)]가 빈약한 <궁을가>에 대해 그 서지사항을 기

---

1) 『記言』, 권11, 「淸士列傳」, "自爲兒時, 能攝心通神, 近而閭里居室之微, 遠而四夷八蠻之外, 風氣之殊, 狗嘑鴃舌, 知之如神, 如方技百家之術, 亦皆不言而喩."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의 번역을 이용하였다.

2) 『한국구비문학대계』 7집 15책, pp. 515-517.

3) 『한국구비문학대계』 1집 1책, p. 798.

4) 『한국구비문학대계』 4집 2책, p. 444.

5) 북창 정렴의 도교 연단법에 대한 서술인 <북창비결>(<龍虎秘訣>, <龍虎訣> 등으로도 불린다)과 구별해야 한다.

6) <북창비결> 또한 정렴에 가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백승종, 『예언가 우리 역사를 말하다』, 푸른역사, 2007. p.125, p.134 참조.

7) 다음의 연구가 있다. 최원식, 「東學歌辭 解題」, 『동학가사(東學歌辭)』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김광순, 「水雲歌辭에 對하여-解題와 原文紹介」, 『한국의 철학』15, 1987; 유경환, "東學歌辭에 나타난 弓乙에 대한 小考-弓乙의 淵源과 意味體系의 再構" 『高凰論集』4, 1988; 유경환, 「東學歌辭에 나타난 弓乙에 대한 小考-弓乙의 淵源과 상징적 意味體系의 再構-」, 『국어국문학』101, 1989; 이상비, 「南朝鮮信仰 小考-특히 弓乙歌와 春山採芝歌에 대하여-」, 『국어국문학연구』, 1990; 이복규, 「새로 발굴한 동학가사 〈궁을성도가(弓乙成道歌)〉」, 『한국문학과 예술』19, 2016; 이수진, 「자료집 『청림도사 지지가(靑林道士 知止歌)』에 수록된 가사작품 6편에 대한 검토」, 『온지논총』51, 2017.

본적으로 살피고 그 사상적 맥락을 알아보려 한다.

Ⅱ. <궁을가>의 서지사항과 분류

<궁을가>의 여러 필사본이 존재하는 가운데, 서지사항이 가장 분명한 자료는 경북 상주에 위치하는 동학교(東學敎)의 가사경전 『용담유사(龍潭遺詞)』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용담유사(龍潭遺詞)』는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의 본래 『용담유사』를 제1권으로 한, 총 40권의 거질이다.[8] <궁을가>는 이중 권36 <궁을가(弓乙歌)>로 소개되어 있으며, 발간년도는 1932년이다. 이에 대해 동학교의 김덕용(金德龍) 씨(동학교 교주 金周熙의 아들)는 권1의 <용담유사>, 권2의 <임하유서> 외에 나머지는 전부 교주 김주희의 저작이라 말한 바 있다.[9] 이를 따른다면 <궁을가>는 김주희의 작(作)이 된다.

그러나 이 <궁을가>를 동학교의 교주인 김주희가 그 당시 지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10] 표1의 여러 판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궁을가>는 <임하유서(林

최원식은 동학교 『용담유사』와 그 안에 수록된 <궁을가>의 작자 문제에 논했고, 유경환은 동학가사 전반에서 '弓乙'의 출처와 그 의미를 파악하려 하였다. 이상비의 연구는 남조선신앙(南朝鮮信仰)의 대표적인 비결로 <궁을가>와 <춘산채지가>를 들었고 <궁을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결국 天地와 父母는 同格인 것입니다. 天地定位가 되지 않았고 太陰太陽이 未定하기 때문에 世界가 시끄럽게 된 것인데 이제 成度를 향하여 度數가 돌아간다는 것이니 그것은 太石의 時代로 更歸한다는 것입니다. 宇宙의 運行이 原點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그것이 單純한 回騎가 아니라 二十四會의 變復이기 때문에 天地의 모든 度數가 充滿되는 時期가 된다는 讚歌입니다."(pp.227-228) 이복규는 <궁을성도가>를 새로 발굴한 가사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궁을성도가>는 <궁을가>와 사실상 같은 작품이다. 이수진은 김해정 교수 소장본 『청림도사 지지가(靑林道士 知止歌)』에 실린 여러 가사 중 하나인 <궁을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한편 『한국신종교사전』에도 <궁을가> 항목을 두어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한국신종교학회·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편, 『한국신종교사전』, 한국신종교사전편찬위원회, 2018. p.89 참조.

8) 수운 최제우의 『용담유사』와 김주희가 지었다고 이야기되는 동학교의 경전 『용담유사』는 '용담유사'란 제목을 공유하기에 혼동되기 쉽다.

9) 최원식, 「東學歌辭 解題」, 『동학가사(東學歌辭)』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p. xiii 참조.

下遺書)> 등의 다른 비결가사와 결합하여 필사되는 경향이 강하다.[11] 앞일을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비결가사의 성격 때문에 여타의 가사에 비해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쉬웠고, 이 때문에 필사하여 남들에게 전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흥미 요소로 인해 동학교의 경전, 『용담유사』 안에도 편입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곧 민중에게 두루 인기를 끌었기에 동학교에서 <궁을가>를 수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궁을가>가 동학교에서 지어지지 않았다는 보다 분명한 이유는 동학교가 1922년 세워지기 이전 <궁을가>가 『대순전경(大巡典經)』에서 증산(甑山) 강일순(姜一淳)에 의해 언급된다는 것이다. 이는 4장에 상세히 언급할 것인데, 여기서는 우선 "朝鮮江山 名山이라 道通君子 다시난다"는 구절과 "四明堂이 更生하니 昇平時代 不遠이라"란 구절이 포함된 궁을가가 당시 민중들에게 알려져 있던 궁을가[12]임을 지적해 둔다. 물론 동학교의 <궁을가>도 이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동학교본 <궁을가>의 앞부분은 다른 필사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김주희가 창작하여 붙인 부분이라 생각해 본다면 김주희는 궁을가를 짓지는 않았을지라도 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동학교본에서 앞부분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궁을가> 필사본은 이에서 대동소이하다. 표1의 2~15까지의 가사가 그러하다. 이에 표1의 1-15까지의 궁을가 유형을 '용호도사 궁을가 유형'으로 계열을 분류하고자 한다. 이중 1의 경우, 서두에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용호도사 궁을가 유형 중 동학교본 궁을가로 특별히 지칭할 수 있겠다.

---

10) 이에 대해 하성래, 유탁일이 의문을 제기하였고, 최원식 또한 이에 동조하고 있다. 「東學歌辭 解題」, 『동학가사(東學歌辭)』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pp. xiii-xiv 참조.

11) 가사작품 1편을 단독으로 보기보다는 서책 전반에 수록된 작품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할 필요에 대해 점차 연구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수진, 「자료집 『청림도사 지지가(靑林道士 知止歌)』에 수록된 가사작품 6편에 대한 검토」, 『온지논총』51, 2017. pp. 160-161 참조. 필자는 특히 종교가사에 있어 가사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필사자의 종교적 정체성 내지는 수록가사의 종교적 배경을 밝혀줄 수 있기 때문이다.

12) 증산은 "弓乙歌에 일렀으되", "弓乙歌에 (...)하였으니" 하는 방식으로 말한다. 곧 모두 익히 알고 있는 가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표1. <궁을가>의 이본사항[13)]

	제목		소장처	체제	비고	계열
1	弓乙歌	목판본	상주 동학교당	龍潭遺辭之第三十六 弓乙歌 卷一		용호도사 궁을가 유형 (동학교본)
2	龍虎道士 弓乙歌	필사본	국립중앙 도서관	**弓乙歌**-難成歌-十愼丈夫歌-九忍丈夫歌-八條歌-七政歌-功成歌	古1496-21	용호도사 궁을가 유형 (국중도본)
3	弓乙歌	필사본	한국가사 문학관	교혼가 경신-안심가라 경신-용담가라-몽중노쇼문답가라-도슈사 신유-권학가 임슐-도덕가 임슐-흥비가 계히-**궁을가(弓乙歌)**-금무가	UCI: G001+KR08-4 850000090807. D0.V00000391	용호도사 궁을가 유형
4	弓乙歌	필사본	한국가사 문학관	용담가라-교훈가라-몽중노소문답가라(몽준ᄂᆞ소문답가라)도슈가라-권학가-도덕가-흥비가-안심편-**궁을가**-임하유셔-슈납종셩이라	UCI: G001+KR08-4 850000090807. D0.V00000462	용호도사 궁을가 유형
5	弓乙歌	필사본	한국가사 문학관		UCI: G001+KR08-4 850000120908. D0.V00006887	용호도사 궁을가 유형
6	弓乙歌	필사본	한국가사 문학관		UCI: G001+KR08-4 850000120920. D0.V00006963	용호도사 궁을가 유형
7	弓乙歌	필사본	한국가사 문학관	敎訓歌-龍潭歌-夢中老少問荅歌-道修歌-勸學歌-道德家-與比歌-道成歌-**弓乙歌**-擊釗歌	UCI: G001+KR08-4 850000101016. D0.V00004289	용호도사 궁을가 유형

13) 경기대, 단국대, 전남대, 성균관대에도 필사본 <궁을가>가 소장되어 있으나, 직접 확인을 못한 관계로 이 표에 싣지 않았다. 그러나 표에서 제시한 것만으로 판본상의 비교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14) 종이에 다소 손상이 있어 한국가사문학관에서는 '용호도사궁을가라'를 '효도사궁을가라'

8	弓乙歌	필사본	한국가사 문학관	敎訓歌-安心歌-龍潭歌-夢中素問答歌-道修詞-勸學歌-道德歌-興比歌-八節-**弓乙歌**-道成歌	UCI: G001+KR08-4 850000101016. D0.V00004310	용호도사 궁을가 유형
9	弓乙歌	필사본	한국가사 문학관	**궁을가(弓乙歌)**-경탄가(敬歎歌)-임ᄒᆞ유서(林下遺書)	UCI: G001+KR08-4 850000091026. D0.V00000147	용호도사 궁을가 유형
10	궁을가 (용호디사)	필사본	한국가사 문학관	임하유서 지지가-**궁을가**-삼재가라-도셩가라-언월가라-갑자가라-직금가라	UCI: G001+KR08-4 850000090730. D0.V00001008	용호도사 궁을가 유형
11	궁을가	필사본	한국가사 문학관	**궁을가**-경탄가-도셩가-임하유서	UCI: G001+KR08-4 850000091026. D0.V00001495	용호도사 궁을가 유형
12	弓乙歌	필사본	한국가사 문학관	청임유서-**궁을가**-삼재가-부인수도	UCI: G001+KR08-4 850000090929. D0.V00001849	용호도사 궁을가 유형
13	용호도사 궁을가라[14]	필사본	한국가사 문학관	두루마리	UCI: G001+KR08-4 850000101013. D0.V00003693	용호도사 궁을가 유형
14	부부가[15]	필사본	한국가사 문학관		UCI: G001+KR08-4 850000091026. D0.V00001510	용호도사 궁을가 유형
15	궁을 셩도가[16]	필사본				용호도사 궁을가 유형
16	弓乙經 弓乙歌[17]	필사본	한국가사 문학관	**궁을경궁을가(弓乙經弓乙歌)**-삼재가(三才歌)-연월가(年月歌)-도성가(道成歌)-내슈도하난 볍이라(닉슈도ᄒᆞᄂᆞᆫ볍이라)	UCI: G001+KR08-4 850000101016. D0.V00004430	용호도사 궁을가 축약 유형 (부분적 필사)

로 오기(誤記)하고 있음을 부기해 둔다. 한편 가사 후반부에는 다른 필사가 들어가 있다.

17	궁월가라	필사본	한국가사 문학관		UCI: G001+KR08-4 850000110929. D0.V00006235	용호도사 궁을가 변형 유형
18	弓乙歌		고불선원			김일부선생/ 백운도사 궁을가 유형 (고불선원본)
19	弓乙歌	필사본	한국가사 문학관		UCI: G001+KR08-4 850000120920. D0.V00006962	김일부선생/ 백운도사 궁을가 유형 (가사문학관본)

한편 표1의 16. <弓乙經弓乙歌>는 내용은 무척 짧은데 용호도사 궁을가 유형의 한 부분만을 필사한 것이다.[18)]

표1의 17. <궁월가라>는 2-15까지와 비슷하나 뒷부분부터 상이하게 달라져서 여타의 궁을가와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궁월가라> 뒷부분 중 "동셔양 괴질운슈 시로게벽 되난이라 괴가승히 법이되야 호열ㅈ도 무셩거던 흑샤병이 왼일인고 권시잇다 막아니며 총인들 막아니며 갈인들 막아닐가 기초동방 발간는ㄷ 더딘즘은 외안씨나" 같은 부분은 호열자, 흑사병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흥미롭다.

15) 한국가사문학관 해제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두루마리에 필사된 동학가사 작품이다. 그 서두에 <부부가(夫婦歌)>라는 제목이 붙어있기는 하나, 실은 <궁을가(弓乙歌)>라는 작자 및 제작 시기 미상 작품의 중간 부분부터 나머지 부분을 매행 끝에 반복되는 "궁궁을을 셩도로다"라는 후렴구만 빼고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그리고 필사시기를 1962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16) 이복규 교수가 발굴한 자료로서, 『무극도경(無極道經)』 필사본 책에 다른 가사들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다음의 논문에 자료가 소개되어 있다. 이복규, 「새로 발굴한 동학가사 〈궁을성도가(弓乙成道歌)〉」, 『한국문학과예술』19, 2016.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궁을가>와 같은 작품이다. <궁을성도가>라는 제목은 <궁을가>에서 계속 반복되는 '궁궁을을 성도로다'에서 온 것으로 판단된다.

17) 한국가사문학관에서는 '弓乙經弓乙歌'를 '弓乙韓弓乙歌'로 오기(誤記)하고 있다.

18) "春아春아 太平春아 四時安乭 太平春아 / 三十六宮 都是春과 東園桃李 片時春을 / 綠陰芳艸 勝花時예 안이놀고 무엇ㅎ리 / 弓乙歌나 불으면셔 그리그리 노라보자 / 天弓天乙 司天ㅎ고 太弓太乙 司地ㅎ이 / 니노리 乙불으면 弓弓乙乙로 太平이라"

용호도사 궁을가 변형 유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표1의 18, 19 <궁을가>는 앞서 보았던 유형과는 다른 유형으로 주의를 요한다. 18의 경우 고불선원에서 공개한 대순전경 필사본에 함께 필사된 가사 중 하나이다. 이 자료는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근-현대문화유산종교(민족종교분야) 목록조사 연구보고서>((2016.10.25)에 포함되어 있으며(분류번호 증 2-1-05 등)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다.[19] 이 필사본 자료의 표지를 볼 때, 1949년 7월 필사본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필사본은 흥미롭게도 《대순전경》뿐 아니라 여러 가사가 필사되어 있는데, 그중 <궁을가>가 수록되어 있다. 이 <궁을가>는 제목 아래에 김일부선생(金一夫先生)으로 작자를 표기하고 있다. 곧 《정역》을 지은 일부(一夫) 김항(金恒)이다.[20] 그렇기에 이를 일단 '김일부선생 궁을가'라고 지칭토록 한다. 이 김일부선생 궁을가를 용호도사 궁을가 유형과 비교해 본 결과 그 내용이 상이하다. 첫째, 앞서보았던 "朝鮮江山 名山이라 道通君子 다시 난다" 구절과 "四明堂이 更生하니 昇平時代 不遠이라"란 구절이 없으며, 둘째, 후렴구로 반복되는 "궁궁을을 성도로다" 구절이 없다. 셋째, <임하유서>, <채지가>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눈에 띈다.[21] 우선 첫머리를 비교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2. 두 <궁을가>의 첫머리 비교

용호도사 궁을가[22]	김일부선생 궁을가
大明天地 日月下에 億兆蒼生 生계실제	禮義文物 朝鮮國에 天命바다 내신道士
三皇五帝 恩德으로 너도나고 나도날제	無極大道 工夫하며 弓弓乙乙 成道로다
父母恩德 입어나서 恩大德重 泰山이라	萬古諸王 興亡事와 八荒天地 変覆하나
天地定配 一分後의 乾坤父母 一般이라	無不知通 모를소냐 風雲造化 意미로다

19)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충북 충주시 고불선원 소장 자료, 大巡典經, 등록번호 IM0000081330

20) 김일부의 생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이정호, <일부선생전>, 『정역연구』, 國際大學 人文社會科學 硏究所, 1976, pp.179-226.

21) <채지가>에 대해서는 박병훈, 「<채지가> 연구」, 『차세대인문사회연구』 13, 2017 참조.

2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것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울리我等 童蒙들은 父母恩德 갑는노라 너와나와 불너보ᄌᆞ 九復九變 此時天地 一四於四 九變化도 一千四百 四十數오 一四於四 九復化도 一千四百 四十數ᄆᆡ 甲子正月 初一日로 後天九復 十二會라 二十一年 甲辰春에 周星回度 太陽이라 太陰太陽이 未定ᄒᆞ이 外各國이 紛紛이라 天時地理 尊重ᄒᆞ나 不如人和 此時로다 此時甲子 九復下에 太古之時 更歸로다 二十四方이 誠天地ᄆᆡ 二十四回 變復이라 十二會로 來ᄒᆞ여 다시分明 二十一年 弓弓乙乙 成度로다 弓乙星辰 照臨ᄒᆞ여 萬法規定 造化로다 弓弓乙乙 成度로다	天根月屈 往來間에 星弓星乙 照臨하네 空中樓閣 놉흔집에 道通君子 識이로다 無聲無臭 上天意는 好生之德 廣大하니 衣冠文物 朝鮮國에 天命바다 내신道士 無極大道 工夫하며 天窮地乙 成道로다 廣濟蒼生 하시랴고 弓乙歌로 지여내여 이세상에 現發한이 可憐하다 蒼生들아 이노래를 드은후에 明心不忘 잇지마소 天地陰陽 造化間에 너도나고 나도나니 父母恩德 적을손야 如山如海 망극이라 莫非王土 田畓間에 五穀심어 生涯한이 나에恩德 적을손야 盡忠盡命 織分이라 天地間 萬物中에 最貴한者 사람이라

곧 제목은 같으나 다른 종류의 <궁을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용과 주제의식이 유사한 측면이 있고, 이 <궁을가> 역시 필사되어 전파되었음을 볼 때, 이 '김일부선생 궁을가' 역시 민중들이 떠올리고 불렀던 궁을가라고 생각된다. 이 유형은 대순전경본 외에 가사문학관에도 소장되어 있다(표1의 19번). 가사문학관 소장본은 '白雲道士所作' 곧 백운도사가 지었다고 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고, 대순전경본과 비교해 보면 서두가 생략되어 있다. 18, 19의 유형은 기존 '용호도사 궁을가 유형'이라 부른 궁을가와 구별하기 위해, '김일부선생 궁을가 유형' 내지는 '백운도사 궁을가 유형'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18, 19의 개별 작품을 지칭할 때는 각각 <김일부선생 궁을가>, <백운도사 궁을가>라 하고자 한다.

김일부선생 궁을가 유형은 기존 비결가사인 <채지가>와 <임하유서>[23]에 영향을 받은 것이 특징적인데, 우선 <채지가>의 영향을 살펴보자. <채지가>는 <남조선(南朝鮮) 뱃노래>·<초당(草堂)의 봄꿈>·<달노래>·<칠월식과(七月食苽)>·<남

23) 동학교 《용담유사》 권2에 실려 있다.

강철교(南江鐵橋)>·<춘산노인(春山老人) 이야기> 총 6편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중 <남조선(南朝鮮) 뱃노래>·<춘산노인(春山老人) 이야기>에서 구절들이 인용되고 있다.

三綱五倫 발가오면 미들信字 엇씀이라(<춘산노인 이야기>)[24]

琪花瑤草 亂滿하고(<뱃노래>)

桃花流水 조然處에 片舟漁郞 이리오소(뱃노래)

<채지가>를 직접 언급하기도 한다.

南山四皓(商山四皓) 採芝歌는 逃世君子 高風이요(<초당의 봄꿈>)

여기서 상산사호(商山四皓)는 진시황(秦始皇) 시기, 폭정을 피해 상산(商山)에 은둔한 네 현인인 동원공(東園公)·각리선생(角里先生)·기리계(綺里季)·하황공(夏黃公)을 말한다. 이들이 은둔하며 부른 노래[25]를 자지가(紫芝歌), 혹은 채지가(採芝歌) 등으로 불렀다. 가사에서 언급되는 <채지가>는 이를 말하는 것이면서도 본문 내에서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가사 <채지가>이기도 하다.[26]

---

24) 이 구절은 <임하유서·지지가>에도 등장한다.

25) "수풀 우거진 높은 산, 구불구불 이어진 깊은 계곡. 무성한 자줏빛 영지, 허기를 달랠 수 있다네. 요순시대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 우리는 장차 어디로 돌아갈까? 네 필 말이 끄는 수레의 높다란 덮개, 그 근심 심히 크구나. 부귀하면서 다른 사람을 두려워 하는 것은, 빈천하면서 내 뜻대로 하는 것만 못하지[莫莫高山, 深谷逶迤. 曄曄紫芝, 可以療飢. 唐虞世遠, 吾將何歸. 駟馬高蓋, 其憂甚大. 富貴之畏人, 不如貧賤之肆志.]"(《高士傳》, <四皓>) 번역은 다음의 책에 따른다. 황보밀, 김장환 옮김, 《高士傳》, 예문서원, 2000.

26) 자지가(紫芝歌) 혹은 채지가(採芝歌)는 가사 <채지가>에 깊은 모티프를 제공하였다. 이들 상산사호들의 이미지는 중국과 조선에 퍼지며 상산사호의 신선적인 면모를 심어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상산사호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전효진, 「조선시대 사호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17.

한편 비결가사 <임하유서(林下遺書)>[27]의 영향도 드러나는데, 다음과 같다.

三綱五倫 발가오면 미들信字 엇씀이라(<지지가(知止歌)>)

人口有土 외모르오 修心正氣 坐字로다(<지지가>)

傷人害物 하지말고(<지지가>)

곧 <채지가>와 <임하유서> 등의 비결가사가 김일부선생 궁을가 유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표1의 이본들 이외에 원불교의 궁을가가 있다. 원불교의 대산(大山) 김대거(金大擧, 1914~1998) 종법사의 『대산법어』5에서 원불교에서 불렸던 궁을가를 확인할 수 있다. 원불교본은 판본사항은 분명치 않으나 동학교본에 비해 다른 필사본들과 유사하고, 원불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궁을가라는 의미에서도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28]

---

27) 동학교 《용담유사》 권2에 <임하유서(林下遺書)>란 제목으로 <지지가(知止歌)>, <경탄가(警歎歌)>, <도성가(道成歌)>, <육십화갑자가(六十花甲子歌)>, <연월가(年月歌)> 가사가 묶여 있다. <지지가(知止歌)>만을 <임하유서>로 부르기도 한다.

28) 동학교 본에 비해 후반부(我東天地 分野中에 二陰二陽 먼저된다 ~ 傷人害物 부디말고 積德이나 하여보소)가 생략된 형태이다. 반복구의 문제도 생각해 볼만하다. 동학교본의 경우 "弓弓乙乙 成道로다"란 구절이 반복되면서 리듬감을 살려주고 있는데, 원불교본에서는 "每句下誦 此六字로 弓弓乙乙 聖道로다"라고 되어 있다. 곧 동학교본과 마찬가지로 '弓弓乙乙成道' 6자를 매구 아래에 반복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원불교 3대 종법사 김대거의 말에 따르면 이 여섯 글자는 '나무아미타불' 염불 여섯 자로 바뀌어 불리기도 한 듯하다.

Ⅲ. ‘궁을’의 의미와 <궁을가>의 내용

1. 동학의 ‘궁을(弓乙)’ 의미의 변화

<궁을가>를 살펴보기 전에 ‘궁을(弓乙)’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궁을’에 대한 논의는 정감록[29]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정감록에서의 궁을 논의는 전쟁 등의 난리를 피할 수 있는 지리적 피란처의 의미가 강했으나,[30] 동학에서는 궁을의 의미를 전유하여 지리적 의미를 탈각시킨다.

고이ᄒᆞᆫ 동국참셔 취켜들고 ᄒᆞᄂᆞᆫ말이
이거임진 왜ᄂᆞᆫᄯᅢᄂᆞᆫ 이ᄌᆡ송송 ᄒᆞ여잇고
가산졍쥬 셔젹ᄯᅢᄂᆞᆫ 이ᄌᆡ가가 ᄒᆞ엿더니
어화세상 ᄉᆞ람들아 이런일을 본바ᄃᆞ셔
싱활디계 ᄒᆞ여보세 딘ᄂᆞ라 녹도셔ᄂᆞᆫ
망딘ᄌᆞᄂᆞᆫ 호야라고 허츅방호 ᄒᆞ엿다가
이세망국 ᄒᆞ온후의 세상ᄉᆞ람 아라스니
우리도 이세상의 이ᄌᆡ궁궁 ᄒᆞ엿ᄃᆞᄂᆡ(...)
가련ᄒᆞᆫ 세상ᄉᆞ룸 이ᄌᆡ궁궁 찻ᄂᆞᆫ말을
우실거시 무어시며 불우시디 ᄒᆞᆫ탄말고
세상구경 ᄒᆞ여스라 송송가가 아라스되
이ᄌᆡ궁궁 엇디알고 텬운이 둘너시니
근심말고 도라가셔 윤회시운 구경ᄒᆞ소
십이제국 괴딜운수 다시ᄀᆡ벽 안일넌가
태평셩세 다시졍히 국ᄐᆡ민안 ᄒᆞᆯ거시니[31]

29) 정감록은 어떤 고정된 특정한 책이라기보다는 여러 비기도참을 하나로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감록류 비기도참서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나, 이런 비기류들을 호소이 하지메(細井肇)가 1923년 《정감록비결집록(鄭鑑錄秘訣集錄)》이란 이름으로 동경에서 묶어 출판한 이후, 그 범위가 고정되기 시작하였다.

30) 弓弓의 역사적 의미 전개에 대해서는 백승종, 『정감록 미스터리』, 푸른역사, 2012, pp. 45-51을 참고할 것.

정감록류의 비기도참을 '괴이한 동국참서(東國讖書)'로 지칭하며 임진왜란 때에는 '이재송송(利在宋宋·利在松松)'[32], 홍경래의 난 때 '이재가가(利在家家)'[33] 등의 비결이 생활지계(生活之計), 곧 목숨을 살리는 계책이었음을 말한 뒤 사람들이 이재궁궁(利在弓弓)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밝힌다. 마치 녹도서(錄圖書)의 "亡秦者, 胡也"라는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여 진시황이 헛되이 오랑캐(胡)를 방비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았으나 그의 자식 호해(胡亥)에 의해 망했던 것과 같다. 그렇다면 동학에서 말하는 '이재궁궁'은 과연 무엇인가?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에서 알 수 있듯 세상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생명의 위협은 '괴질운수'로 대표되는 역병의 상황이다. 이때 마치 천지가 다시 개벽하는 것과 같은 혼돈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34] 이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재궁궁'이란 말에 따라 '궁궁'에 의존해야 한다. 이 궁궁은 동학의 이치를 말하는 한편, 보다 직접적으로는 영부(靈符)를 뜻한다.

> 나(상제)에게 영부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태는 태극 혹은 궁궁이다. 나의 이 영부를 받아서 사람들의 질병을 구제하고, 나의 주문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를 위하도록 가르치면 너 역시 장생하며 천하에 덕을 펼 것이다.[35]

동학의 부적, 곧 영부는 '궁궁'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수운이 상제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이는 수운이 '십이제국 괴질운수', 곧 온 세상을 휩쓰는 역병의 시운에서 사람들을 구제할 책임을 맡았음을 의미한다. '이재송송', '이재가가'가 앞선

---

31) 《용담유사》(癸未版), <몽중노소문답가>
32)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이 원병을 이끌고 참전한 것을 뜻한다고 한다.
33) 홍경래의 난 때 가만히 집에 있는 것이 이로웠음을 뜻한다고 한다.
34) '다시 개벽'은 《용담유사》에서 단 2차례 등장하는데(<몽중노소문답가>와 <안심가>) 항상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라는 구절로 나타난다. 곧 '다시 개벽'은 애초에는 형이상학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괴질의 운수에 휩싸인 혼돈의 세상을 수사적으로 형용하기 위해 쓰였다고 생각된다.
35) "吾有靈符, 其名仙藥, 其形太極, 又形弓弓. 受我此符, 濟人疾病, 受我呪文, 敎人爲我, 則汝亦長生, 布德天下矣"(<布德文> 《東經大全》)

임진왜란, 홍경래의 난 등의 난리로부터 사람들에게 피난의 방책을 알려준 것처럼 '이재궁궁'은 곧 '괴질운수'로부터 사람들이 살 방도는 그 질병을 구제하는 영부임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수운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하는 이정화(李正華)의 공초 기록에서도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 옛날 임진년이나 임신년에는 이(利)가 송송(松松)에 있다고 하고 가가(家家)에 있다고 하였지만, 갑자년에는 이가 궁궁(弓弓)에 있기 때문에 궁자를 불태워서 마시면 제어하기에 충분하다.[36]

그러나 이 영부는 단지 치병의 부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도덕으로까지 확장된다.

> (영부를) 병에 써 보니 혹은 낫기도 하고 혹은 낫지 않기도 하여 그 실마리를 알지 못하였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곧 정성을 다하고 또 다하여 지극히 상제를 위하는 자는 매번 영부가 들어맞았고, 도덕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모두 증험이 없었다. 이 어찌 받은 이의 성경(誠敬)에 따른 것이 아니겠는가.[37]

정성과 공경[誠敬], 혹은 정성으로 상제[天主]를 위하는 것이 도덕의 내용으로 표현되며, 도덕에 따르지 않는 이에게는 영부가 듣지 않는다고 하였다. 곧 영부는 단순히 치병의 도구가 아니며 성경으로 대표되는 도덕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38]

---

36) "昔在壬辰、壬申之年, 有曰 '利在松松, 利在家家', 而甲子則利在弓弓, 燒飮弓字, 足以制之.(《高宗實錄》 1권, 고종 1년 2월 29일 경자 4번째기사)"

37) "到此用病, 則或有差不差, 故莫知其端. 察其所然, 則誠之又誠, 至爲天主者, 每每有中, 不順道德者 一一無驗. 此非受人之誠敬耶?"(《東經大全》 <布德文>)

38) 도덕과 영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박병훈, 「동학의 영부관 연구-시천교계 교단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31, 2016.

2. <궁을가>의 내용

<궁을가>[39]에서의 궁을은 동학의 궁을 의미와 연속선상에 있다. 우선 궁을에 있어 정감록류의 지리적인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며, 어떠한 피난처로 떠나가지 말 것을 강조한다.

> 弓不在山 어디갈고 乙不在水 其誰知오 (...)
> 가고가는 這百姓은 離鄕親戚을 어이ᄒᆞ료 (...)
> 父母妻子 다바리고 吉地찬는 這百姓아 (...)
> 自古蒼生 避亂ᄒᆞ여 幾萬名이 ᄉᆞ란는냐

궁(弓)은 산에도 물에도 없다.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로 가야할 지도 모른다. 고향을 떠나 일가친척을 버리고 십승지 등의 길지를 찾는 이들에게 옛부터 피란하여 목숨을 구하기는 어렵다고 경계한다. 그렇다면 장차 다가올 위험은 무엇인가? 동학에서 괴질을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궁을가>에서는 외세의 침입을 말한다.

> 無道ᄒᆞ다 外國兵馬 禮儀之國 侵犯ᄒᆞᆫ다

이러한 위험은 춘추전국과 같은 전쟁의 상황으로 묘사된다.[40]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궁을가>에서는 기존 비결서의 난해한 구절('道下地', '人口有土', '落盤爲乳(落盤四乳)')을 전유하여 도덕수양을 요구한다.

> 悖道말고 修身ᄒᆞ면 道下地가 여긔로다
>
> 人口有土 뉘알손가 修身正道 안질좌ᄭᆞ

---

39) 용호도사 궁을가 유형인 국중도의 <용호도사 궁을가>를 대상으로 인용토록 한다.
40) "春秋戰國 이려날제 天地運數 안이런가"

落盤爲乳 뉘알손가 仁義禮智 積善家라

그리고 수신 등의 도덕을 행하지 않고 악을 쌓는 이에게는 응보가 있을 것임을 말한다. 이런 이들은 피난을 가도 소용이 없다.

積惡者는 無可奈라 弓弓乙乙 成度로다
一片修身 안이ᄒᆞ고 가고가면 살아날가 弓弓乙乙 成度로다
一片恩德 전여업서 生活之方 찬는도다 弓弓乙乙 成度로다
忠君孝父 안이ᄒᆞ고 南遷北遷 어인일고 弓弓乙乙 成度로다
分離親戚 가지말고 隣里相和 根本이라 弓弓乙乙 成度로다

수신 외에도 방법은 있다. 바로 <궁을가>를 부르는 것이다. 이 <궁을가>를 부름으로써 외국병마를 막을 수 있고 국태민안을 이룰 수 있는 등 여러 효험을 보여준다.

修道업시 노래라도 늘불르면 人和이라

至誠으로 늘 불르면 外國兵馬 不犯이라

어서빨리 불너보ᄌᆞ 天時不如人和로다 弓弓乙乙 成度로다
國泰民安 절노되고 亂臣賊子 물너간다 弓弓乙乙 成度로다
時乎時乎 不再來라 男兒得意 잇ᄯᅢ로다 弓弓乙乙 成度로다

위에서 보았듯 <궁을가>는 동학에서의 궁을 의미와 같이, 지리적 피난처가 아닌 궁을을 지시한다. 그리고 외국병마의 침략으로부터 오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도덕적 수양을 요구하며, 이 수양 없이 지리적으로 피란하는 이들은 그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한다. 한편으로 <궁을가>를 부름으로써 생기는 효험, 일종의 주력(呪力)을 강조하는 신비성을 보여주기도 한다.[41]

41) 동학가사인 <검가(劍歌)>, 혹은 <검결(劍訣)>도 외세를 제어하는 노래 자체의 주력(呪

Ⅳ. 각 교단의 <궁을가>에 대한 인식

궁을가는 정감록류 비기도참의 구조를 전유하여 민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들은 한국 근대기 신종교들에 있어서 매력적인 요소였으며, 신종교들은 적극적으로 궁을가를 비롯한 비결가사들을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아래에서 증산의 경우, 원불교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증산 강일순의 인식

증산교단의 시조가 되는 증산(甑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은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소위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통해 천지의 도수를 뜯어고쳤다고 한다. 그를 기록한 『증산천사공사기(甑山天師公事記)』가 1926년 저술되었고, 『대순전경(大巡典經)』이란 이름으로 1929년에 보완되어 나왔다. 이 『대순전경』에는 궁을가와 관련하여 다음 구절들이 등장한다.

> 나를믿는者는 無窮한寧福을어더 仙境의樂을누리리니 이것이참東學이라 弓乙歌에 「朝鮮江山名山이라 道通君子다시난다」 하엿스니 이일을일음이니라 東學信徒間에崔水雲이更生하리라고傳하나 죽은者가다시사라오지못하는것이오 내가곳代先生이로라(『大巡典經』 4장 14절)

증산은 당시[42]에 널리 퍼진 궁을가의 '조선강산 명산이라 도통군자 다시 난다'라는 한 구절을 들어 수운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43] 자신이 수운을 대신하

力)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교할 만하다. "하루는 천신(天神)이 내려와 가르치기를, 『요사이 바다 위에 배로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은 모두 양인인데 칼춤이 아니고는 제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검가(劍歌) 한 편을 주었습니다.(《高宗實錄》 1권, 고종 1년 2월 29일 경자 4번째기사)"

42) 증산의 소위 천지공사 시기는 1901년부터 1909년까지로 알려져 있다. <궁을가>는 20세기 초에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3) 황현의 《오하기문(梧下記聞)》, 오지영의 《동학사(東學史)》 등에서 수운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거나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람들의 믿음을 엿볼 수 있다.

는 '대선생(代先生)'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 이제母岳山을爲主하야 回文山 五仙圍碁를應氣하고 拜禮밧君臣奉詔(泰仁)와 僧達山胡僧禮佛(務安)과 巽龍仙女織錦(長城)의氣靈을統合하야 此로써本宗을삼어 大地의鍾靈을集中할지니 弓乙歌에일넛스되 「四明堂이更生하니昇平時代不遠이라」 하엿나니 이를일음이니라(『大巡典經』 9장 7절)

궁을가의 사명당을 사명대사로 잘 알려져 있는 사명당(四溟堂, 1544~1610)이 아니라 네 명당[四明堂][44]으로서 의미를 전유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네 명당[45]에 대한 공사를 통해 '승평시대'로 일컬어지는 시대가 곧 올 것임을 말하고 있다.

<궁을가>는 곧 증산의 출세와 공사(公事)를 예언한 신이한 예언가사, 비결가사로 여겨진 것이며, 이는 <궁을가>의 예언적 특성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2. 원불교의 인식[46]

원불교에서는 궁을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少太山) 박중빈(朴重彬, 1891~1943)에게 조원선은 동학가사의 '이재궁궁을을(利在弓弓乙乙)'에 대해 물어본 후 궁을가에 대해 다시 물어본다.

> 조원선(曺元善)이 여쭙기를 [동학 가사에 "이로운 것이 궁궁을을에 있다(利在弓弓乙乙)"하였사오니 무슨 뜻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구구한 해석이 많이 있으나 글자 그대로 궁궁은 무극 곧 일원이 되고 을을은 태극이

---

44) 이 네 명당은 아래의 구절에서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네 명당은 순창 회문산(淳昌回文山)의 오선위기형과 무안(務安) 승달산(僧達山)의 호승예불형(胡僧禮佛形)과 장성(長城) 손룡(巽龍)의 선녀직금형(仙女織錦形)과 태인(泰仁) 배례밭(拜禮田)의 군신봉조형(群臣奉詔形)이니라."((『전경』「공사」)

45) 이 네 명당은 호승예불혈(胡僧禮佛穴), 오선위기혈(五仙圍碁穴), 군신봉조혈(群臣奉詔穴), 선녀직금혈(仙女織錦穴)이다.

46) 원불교에서의 궁을가 인식은 이미 백승종의 연구에서 다뤄진 바 있고, 필자는 이를 좀 더 상술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백승종, 『정감록 미스터리』, 푸른역사, 2012, pp. 53-56.

> 되나니 곧 도덕의 본원을 밝히심이요, 이러한 원만한 도덕을 주장하여 모든 척이 없이 살면 이로운 것이 많다는 것이니라.] 또 여쭙기를 [궁을가를 늘 부르면 운이 열린다 하였사오니 무슨 뜻이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도덕을 신봉하면서 염불이나 주송(呪誦)을 많이 계속하면 자연 일심이 청정하여 각자의 내심에 원심과 독심이 녹아질 것이며, 그에 따라 천지 허공 법계가 다 청정하고 평화하여질 것이라는 말씀이니 그보다 좋은 노래가 어디 있으리요. 많이 부르라.](대종경 제6변의품(辨疑品)

소태산은 궁궁은 무극이며, 을을은 태극이라 하여, '궁궁을을'을 '도덕의 본원'이라 일컫는다. 그리하여 '이로운 것이 궁궁을을에 있다'는 말의 의미를 '원만한 도덕을 주장하여 모든 척이 없이 살면 이로운 것이 많다'는 의미로 풀고 있다. 이어서의 궁을가의 효험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이전의 질문과 같은 맥락, 곧 '도덕의 신봉' 차원을 들고 있다. 궁을가는 곧 도덕을 권장하는 일종의 도덕가(道德歌)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보다 좋은 노래가 없으며 많이 부를 것을 강조한다.

원불교 3대 종사인 대산 김대거는 궁을가의 도덕적 측면을 역시 지적하면서도 예언적인 측면에서도 풀이하고 있다.

> 매구하송(每句下誦) 차육자(此六字)에 육자는 {나무아미타불}이란 말인데 염불을 많이 하란 뜻이다. 하루 일곱 번씩은 집에 가서 해야 된다. 바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구변구복(九變九復)이라 했는데 이 말은 극수(極數)이다. 하늘을 구천 (九天)이라고도 하고 구소(九霄)라고도 하고 구곡(九曲) 구중(九重)이라고도 하여 이 극수로 내려오기 때문에 천지가 한 바퀴 돈다는 뜻이다. 두 손을 들어 둥글게 만들면 그것이 궁이다. 그 안에 ∽을 하면 궁을이 되어 태극이 된다. 태극을 유교에서 무극이라고 하고 원불교에서는 일원이라고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손을 들어 궁궁을을(弓弓乙乙)을 가르쳐 주셨다. 우리 한국도 좋아진다. 태극기가 궁궁을을 아닌가? 또 이 한국에 일원 대도가 나왔으니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고 음과 양, 건과 곤, 남과 여, 도와 덕, 이것이 태극이다. 무극이 태극이라고 하였다. 또 태극이 궁궁을을이다. 이것을 노래 부른 양반이 쉽게 말하면 도덕가이다. 그런데 이 궁을가를 몇 천년 전에 지었는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있다. 언제 지었는지 모르는 궁을가에 갑자

> 정월 초하루로 후천 구복 십이회란 말이 있다. 그 말은 갑자년부터 우리 회상이 건설된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1대겁이 된다는 원리만 밝히셨고, 대종사님은 갑자 정월 초하루로 1대겁이 시작된다고 하셨다. 그 궁을가는 천도교에서는 권학가라 해서 많이 썼고,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다. 궁을가에 8·15 해방까지도 말하여져 있으니, 대종사님께서 참 선각자가 있었구나 하셨다.[47]

궁을, 궁궁을을을 태극으로 풀고 있으며, 다시 원불교의 핵심개념인 일원(一圓)으로 받아들인다. 또 <궁을가>의 구절인 "갑자 정월 초하루로 후천 구복 십이회"를 들고 갑자년부터 '우리 회상(會上)', 곧 원불교의 건설을 들고 있다. 갑자년은 1924년인데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박중빈은 1916년 대각하였고,[48] 그 뒤로 1917년 저축조합, 1918년 간척사업, 1919년 백지혈인(白指血印)의 이적, 1924년 전북 익산에서의 불법연구회 창설 등의 역사를 겪었는데 1924년 불법연구회 창설을 예언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8·15해방까지 이야기했다고 하니 궁을가는 권학가와 같은 도덕을 강조하는 노래인 동시에 예언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성격을 지닌 것이다. 이처럼 궁을가는 각 교단에 수용되며 그 의미의 전유를 통해 교인들에게 다가서려 하였다.

위의 경우들이 궁을가를 그대로 수용한 경우라면, 궁을(弓乙)의 의미를 중시하여 다시금 그 교단에 맞게 짓는 경우도 있다. 이는 궁을의 의미를 확장 및 심화시키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가사들[49] 역시 궁을가의 맥을 잇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

47) 『대산종사법문집』5, 「연도수덕(硏道水德)」, '궁을가(弓乙歌)'
48) 이때가 원기圓紀 1년이다.
49) 三德田弓乙歌, 弓乙十勝歌, 天地合德弓乙歌, 弓弓歌, 乙乙歌, 弓乙圖歌 등이 존재한다.

V. 맺음말

궁을가는 주로 북창 정렴이 지었다고 가탁되며 민중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환난에 대해 어떻게 그 환난을 피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제시해 준 비결가사이다. 정감록류의 비기도참에서는 그것이 흔히 십승지 등의 지리적 공간으로 나타나지만 궁을(弓乙)에 대한 강조도 역시 드러난다. 궁을가는 이 '궁을', '궁궁', '을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덕적(道德的) 의미를 부여하며 시운이 변화하는 때에 목숨을 지켜낼 수 있는 길로 제시한다. 이는 국난의 시대에 개벽 등 시운을 강조했던 한국 근대기의 신종교들에게 있어 매력적인 요소로 수용되었다. 곧 그들은 '궁을'을 키워드로 삼아 도덕을 강조하며, 궁을가에 교리적 의미를 담아내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궁을가의 여러 판본들을 제시하였으며, 유형을 분류하며 김일부선생 궁을가 유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추후 <임하유서> 및 『격암유록』 내 수록가사 등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채지가>, <궁을가>에 이은 비결가사 연구를 계속 진행해 나가려 한다.

주제어: 궁을가(弓乙歌), 정렴, 정북창, 예언가사, 용호대사궁을가

투고일: 2019. 10. 29.	심사종료일: 2019. 11. 06.	게재확정일: 2019. 11. 20.

참고문헌

<자료>

『高宗實錄』

김문기 주해, 『상주동학교당 소장 동학가사』1-6, 상주시·상주동학문화재단, 2009-2016.

『東經大全』

『大巡典經』

『大山宗師法門集』5(원불교 경전법문집 https://won.or.kr/bupmun/)

『龍潭遺詞』

『龍潭遺詞』(東學敎)

『甑山天師公事記』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단행본>

김탁, 『조선의 예언사상』上·下, 북코리아, 2016.

백승종, 『정감록 미스터리』, 푸른역사, 2012.

이정호, <일부선생전>, 『정역연구』, 國際大學 人文社會科學 硏究所, 1976.

<연구>

김광순, 「水雲歌辭에 對하여-解題와 原文紹介」, 『한국의 철학』15, 1987.

박병훈, 「동학의 영부관 연구-시천교계 교단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31, 2016.

박병훈, 「<채지가> 연구」, 『차세대인문사회연구』13, 2017 참조.

유경환, 「東學歌辭에 나타난 弓乙에 대한 小考-弓乙의 淵源과 意味體系의 再構」 『高凰論集』4, 1988.

유경환, 「東學歌辭에 나타난 弓乙에 대한 小考-弓乙의 淵源과 상징적 意味體系의 再構-」, 『국어국문학』101, 1989.

이복규, 「새로 발굴한 동학가사 〈궁을성도가(弓乙成道歌)〉」, 『한국문학과 예술』19, 2016.

이상비, 「南朝鮮信仰 小考-특히 弓乙歌와 春山採芝歌에 대하여-」, 『국어국문학연구』, 1990.

이수진, 「자료집 『청림도사 지지가(靑林道士 知止歌)』에 수록된 가사작품 6편에 대한 검토」, 『온지논총』51, 2017.

전효진, 「조선시대 사호도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17.

최원식, 「東學歌辭 解題」, 『동학가사(東學歌辭)』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Abstract

Study of *the Song of Gung-Eul*(弓乙)

ByoungHoon PARK (Seoul National Univ.)

The Song of Gung-Eul(弓乙), which is said to have been written by Jeong Book-chang(鄭北窓), is a song of prophecy that tells the people how to escape from the tribulation that will come. This song actively gives moral meaning to these "Gung-Gung(弓弓)" and "Eul-Eul(乙乙)" and presents them as a way to save lives when the world is in trouble. This was accepted as an attractive element for the new religions of the Korean modern period that emphasized the Gaebyeok(開闢, Great Opening). They used 'Gung-Eul(弓乙)' as a keyword to emphasize morality, and tried to put the doctrinal meaning in *the Song of Gung-Eul*. In this article, several versions of *the Song of Gung-Eul* were presented, and the types were classified. And this paper presented the prophetic and moral teachings of *the Song of Gung-Eul*.

Key Words: *The Song of Gung-Eul(弓乙)*, Jeong Book-chang(鄭北窓), song of prophecy, Gaebyeok(開闢, Great Opening), Korean New Religion